

8월 28일(월) / 읍3-4장

▶**내용요약:** 욥기 3장은 욥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유아시절을 한탄하면서 죽음 이후의 안식을 갈망한다. 자신의 안타까움과 번민을 그대로 토로한다. 4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의 한탄을 듣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없기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를 증명하고자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 )만이 있구나”(3장)

▶**생각하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고대하고 한탄한다. 하지만 위로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는 이를 듣고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4:7)라고 반문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자가** 있는가?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함이** 참된 위로임을 기억하자!

8월 31일(목) / 읍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전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욥의 응답으로 그가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탄원한다. 이어 잠시의 평안을 기원한다. 11장에서는 소발이 욥의 교만과 의롭다함을 책망한다.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며 회개를 촉구한다. 12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으며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한다.

▶**질문:** 욥의 말에 따르면, 평안한 자는 재앙을 떨시하지만 재앙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가?(12장)

▶**생각하기:** 욥의 고통에 대해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12:6).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일들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9월 3일(주일) / 읍19-21장

▶**내용요약:** 1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두번째 응답으로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토로하면서 욥의 친척과 친구들 모두 자신을 멀리함을 고백한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중보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20장은 소발의 두번째 변론으로 악인의 형통함과 즐거움이 일시적이며 악이 가진 단맛과 쓴맛을 함께 열거하면서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운명임을 주장한다.

8월 29일(화) / 읍5-6장

▶**내용요약:** 5장은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한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기에 능욕하신 하나님께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음을 훈계한다. 따라서 욥이 현재의 환란을 잘 참아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6장은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죽음을 사모한다. 이어 친구들의 가혹한 비난에 대해 그들을 책망한다.

▶**질문:**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끊어버리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6장)

▶**생각하기:**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통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가나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공격할 때 욥은 오히려 당당하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6:24)고 한다. 무조건 고통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엘리바스의 태도에 욥은 담대히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한다. 욥과 같은 **신앙적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9월 1일(금) / 읍13-15장

▶**내용요약:** 13장은 욥이 친구들의 편견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으며 자신의 소원을 기도한다. 14장은 욥이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 언급한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으로 욥을 교만하다고 꾸짖으면서 악인들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 )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15장)

▶**생각하기:** 욥은 고통 중에서 죽음을 동경한다. 그는 말하기를,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14:14)고 한다. 욥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죽음은 단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해방이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마친 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21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응답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악인은 세상에서 번영하나 그 심판은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이 땅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고통당하는 욥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 )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19장)

8월 30일(수) / 읍7-9장

▶**내용요약:** 7장은 욥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죽음을 고대하며 자신이 당한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한다. 이어 자신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속히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간구한다. 8장에서는 빌닷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 변론한다. 9장은 빌닷에게 욥이 답변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보자를 고대한다.

▶**질문:**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8장)

▶**생각하기:** 욥이 친구들의 비판을 받은 후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한다(9:32). 이로 인해 욥은 원통함을 풀어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를 고대한다. 욥과 달리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분은 죄 없는 분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기에 우리의 원통함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9월 2일(토) / 읍16-18장

▶**내용요약:** 1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친구들의 불친절과 내혹함에 대해 책망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중재해주시길 것을 요구한다. 17장은 욥이 친구들마저 자신을 버린 곤란하고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한다. 18장은 빌닷이 욥을 두 번째로 책망하고 악인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 진술한다.

▶**질문:** 욥은 자신의 눈이 무엇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하는가?(17장)

▶**생각하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떤 값싼 위로나 해결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묘사하고 탄식한다. 이를 통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포장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토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꺼내어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자!**

▶**생각하기:** 욥이 고통을 당하며 더욱 아파했던 문제는 자기 친구들뿐 아니라 이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원수가 되는 **관계 상실의 아픔**이었다(19:19).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19:25)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진 것과 상황을 통해 나를 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어떤 모습도 용납하고 사랑하신다. **우리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